

할머니의 사랑

오늘은 갑자기 오래 전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외할머니 생각이 난다. 나에게는 특별한 할머니였다. 어려서부터 함께 살다시피 하셨고 많은 시간 나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이었다. 어렸을 때 개구리 뒷다리 말린 것을 보약과 같이 나에게 삶아 먹이셨고, 늘 사과와 고구마를 숟가락으로 파서 본인의 입에 넣었다 꺼내어 나에게 먹이신 분이시다. 지금 생각하면 어의가 없고 더럽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 때에는 그것이 보통이었다. 얼마나 함께 지내다 버스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갔는데 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난다. 그 정도로 나와 헤어지기가 섭섭하셨던 것 같다.

그러다가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또 다시 한 동네에 살게 되었고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지셔서 훌로 생활하시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 되었다. 하루는 우유를 한 통 사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시다가 우유 한 통 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워 다리에 골절상을 입으셨다.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시간이 넉넉했던 내가 할머니 댁을 방문하며 일어서시지 못하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난다. 그 후 골절상은 회복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셨다.

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나도 할아버지가 되었다. 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되어야 할까?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돌아가신 나의 할머니가 생각났던 것이다. 그래서 얻은 답은 아무런 의견도 없이 그저 사랑하고, 위하고, 격려하고, 필요할 때에 언제고 곁에 다가갈 수 있는 거리에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닐까? 생각 된다. 그런 생각 가운데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한다.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나를 늘 존중해 주시지 않는가? 하나님은 온유하시고, 오래 참으시며, 사랑하시고,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며 입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면서도 그것을 자랑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. 내가 나의 길을 고집하며 길을 가더라도 나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님을 아름다운 방법으로 알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아닌가?

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다. 늘 나의 편에 계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.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친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. 하나님은 “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” (시편 32편 8절) 하나님은 주목하시겠다고 하신다. 주목하신다는 뜻은 두고 보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. 눈동자와 같이 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다.

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까?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.